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45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20,19-23)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20,19-23

우리는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 마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성호 안에는 참으로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고백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관계를 우리 또한 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해 사랑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신비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관계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성부가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합니다. 즉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이 발합니다. 그리고 성자가 있습니다. 성자 또한 성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또한 성부께 발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로 묶어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때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 닳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깊은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 부부라기보다는 오누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랑이기에 성부와 성자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완전히 닳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부에게서 발하는 사랑과 성자에게서 발하는 사랑을 성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즉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 가운데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당신이 사랑 안에서 성부와 일치하는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일치하고 있는지요?

(수원교구 5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5월을 성모성월로 지내면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고 마리아의 순명과 사랑의 모범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 5월 14일은 황 마티아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산호세 성당 공동체를 이끄시는 참된 목자이신 우리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6월 24일에는 성탄반 예비자 입교식이 있습니다. 많은 예비 신자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구역원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1가정 1인 선교를 실천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탈출기 19,1-24,18

◆ 성경 퀴즈

*탈출 19,1-25까지 읽고 ()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거나 제시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시오.

1.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을 듣고 내 ()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가 되고 ()이 될 것이다.
2. 탈출 19,4에서 연약한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태워 나르는 어미 독수리처럼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명 32,10-12의 성경 구절을 읽어 보시오.
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짙은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을 백성이 듣고 너를 언제까지나 믿게 될 것이다."
4. ()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기슭에 섰다. 그때 ()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뿔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로 대답하셨다.

*탈출 20,1-17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 다음 열 가지 십계명을 적으시오.

- | | |
|-----|------|
| (1) | (2) |
| (3) | (4) |
| (5) | (6) |
| (7) | (8) |
| (9) | (10) |

6. 탈출 24장 8절에서 모세는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라고 계약의 성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루카 복음 22장 20절의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는 말씀을 읽어 보시오.

*도전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세 번이나 대답한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성경 본문을 써 보시오.

- 탈출 19,8 ()
탈출 24,3 ()
탈출 24,7 ()

◆ 말씀과 생활 나누기

탈출기 19,1-17에서 '십계명'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방식에 대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보편적 윤리 규범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내 생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중 가장 무겁게 느껴지거나, 지키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짧게 나누어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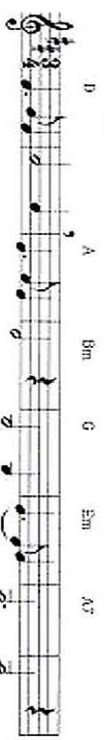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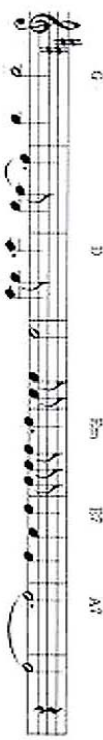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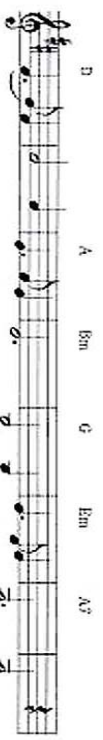
정수원 작곡
원정수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가 모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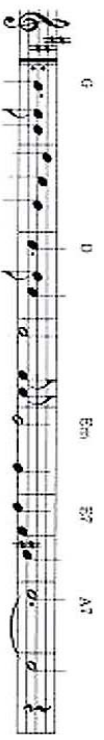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임철무 아



중-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전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